

南

漢

江

남한강

유역의

민속문화

7. 남한강 유역의 시문학



7. 남한강 유역의 시문학

(1) 한강과 시조

멋이란 말은 본래 맛에서 나왔다고 한다. 굳이 멋과 맛이 어원을 달리해서 출발했다 해도 그 두 말의 속성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

멋과 맛은 맛이 먼저 생겼고, 멋이 뒤에 생겼으니 이음동근(異音同根)의 관계에 놓여 있다. 맛은 개별적(個別的)이고, 개성적(個性的)이나 멋은 종합적이고, 보편적이다. 멋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맛이라 할 수 있고, 여러 소규모적이고 지엽적인 맛과 맛의 종합성에서 멋이 산출된다 할 것이다.

모든 음식은 그 음식대로 맛이 다른 법이다. 그 음식들의 하나 하나는 더 넓게 한국 사람만이 갖는 반찬의 멋을 종합적으로 창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그 맛은 맛 이로되 진미(眞味)를 뜻한다.

문학에서 말하는 멋은 그 작품의 개별적 창조성과 그 작품을 산출하게 된 사회적 특수성이 이해될 때 종합적으로 멋이란 운치(韻致)가 일어나는 것이다.

문학에서는 '운치라는 멋' 이 일어난다.

황진이(黃眞伊) 시조문학에 나타난 시정신은 자유분방한 직선은 있으나 표현 기교는

곡선적이고 완곡한 멋으로 나타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놓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굽이굽이 꺾리라

황진이의 한(恨)은 원(怨)을 초월한 한(恨)의 문학이었다. 그러나 원한을 원한으로만 두지 않고 한을 풀어 나갔다. 그 한은 황진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어느 총각에 대한 보상심리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녀가 한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는 수단은 멋진 음악과 문학을 통한 예술적 행위였고, 그 위에 녹아나고 희롱 당한 대상은 허세 떠는 높으신 남성네들이었다.

한국 시가(詩歌)의 멋은 풍류(風流 · dilettantism)이라는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풍류란 원래 숙된 일을 떠나 멋스럽고 예스럽게 노는 일이나 운치스러운 일 등을 종합한 개념이다. 그러기 때문에 풍치가 있고 멋있는 남자를 세칭 풍류남자 · 풍류랑 · 풍류가 등으로 부른다.

고대로부터 한국 민족은 환경 탓인지 몰라도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무척 사랑했고 그 속에서 살고자 했으며 자기 자신을 신선(神仙)으로 탈바꿈 시키기를 즐겨했다.

한 마디로 한국 고전시가는 당시 시인들의 자연 탐구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자연 예찬과 더불어 자연을 조건 없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황홀경(ecstasy)에 몰입하였고 그를 통해 자연 발견의 비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말 없는 淸山이요 態 없는 流水로다
값 없는 淸風이요 임자 없는 明月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우리 선민(先民)의 시를 우리는 시라 하지 않고 '시가(詩歌)' 문학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곧, 시이면서 가도 되고 가이면서 시가 되는, 이를테면 시와 노래가 혼연일체된 시이자 노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신라 향가가 그러했고, 고려 속요나 경기체가

가, 그리고 조선조 시조나 가사 역시 마찬가지 성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노래는 공생·공존의 운명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시가는 시의 멋을 창조하기 위해 동원된 풍류 곧 음악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 멋의 참다움을 맛보게 된다.

앞의 예요(例謠)에 나타났듯이 한국인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다.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서 충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을 수 있는' 여인의 배포가 넓은 시상과 발상을 상상해 보면 알 것이다.

또한 청산과 강·바람·달을 벗 삼아 살아가려 했던 남아의 호연지기를 상상해 보라. 서양 문학적 가치 판단의 세계와는 달리 우리 시가문학 속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학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었으니, 곧 '풍류 = 음악 = 음악과 문학 = 멋의 세계'라는 중의법적(重義法的)인식 하에 시를 이해·생산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시조뿐 아니라 가사(歌辭)문학에서도 자연예찬은 이어졌으니 《한양오백년가사 漢陽五百年歌史》에서 그 예요를 찾기로 한다.

정삼봉(鄭三峯) 거동보소
남산잠두(南山蠶頭) 주작(朱雀)되고
광(廣)나루가 수궁(水宮)되어
이렇듯이 향배(向背)놓고
인의예지(仁義禮智) 이네자(字)로
동대문은 흥인(興仁)이요
서대문은 돈의(敦義)오며

대궐(大闕)을 지을적에
무학(無學)재가 현무(玄武)로다
임진강(臨津江)이 인후(咽喉)로다
동서남북(東西南北) 사대문(四大門)에
서로연(連)해 지어노니
북대문은 광해(廣海)로다

이처럼 한양을 건설하는 데도 민족고유의 사교법과 유교사상을 적절히 원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진(廣津)은 이처럼 정도전이 설정했듯이 서울의 수궁(水宮) 역을 담당한 곳이고, 한편 동작진도 <노들강변> 노래를 낳게 한 문화의 텃밭이었다.

한강과 관련된 시조는 다음과 같이 약 20여 수가 발견된다.

· 가노라 三角山 다시 보자 漢江水야
 故國山川은 써나고자 하리마는
 時節이 하 珠常하니 올동 말동 하여라.
 (金尙憲)

· 道先이 碑峯에 올라 國都를 定호을씩
 子坐 午向으로 城闕을 일잇는듯 左龍 右白虎
 와 南朱雀 北玄武는 貴格으로 벌어 잇고
 前帶河 漢江水는 與天地 根源이라
 太廟는 可左호고 社稷은 可右로다
 三峯이 秀麗호니 人傑이 豪俊호고
 臥牛山 有德호니 民食이 豐足이라
 聖繼神承호야 億萬年之無疆이갓다
 하늘이 金壽長 주오신 뜻을 받들어 萬萬歲를 누리소서

· 삼각산 비 추천 곳의 한강슈 푸루렀다
 틱산으로 증인삼고 녹슈로 언약이라
 지금의 산무궁 슈부진호니 네나 너나

· 임 니별 호든 날 밤에 나는 어히 못 죽엇노
 한강슈 깊은 물에 풍덩실 싸지런만
 지금의 사라 잇기는 임보라고

· 春風杖策 上巔頭호야 漢場成裏를 歷歷히 둘러보니
 仁玉山 三角峯은 虎距龍蟠勢로 北極을 괴야 잇고 終南
 漢水는 襟帶相連호야 久遠호 氣象이 萬千歲之無
 疆이로다
 君修德 臣修政호니 禮義東方이 堯之日月이요 舜之
 乾坤이로다

· 잘 잇거라 三角山야 다시 보자 漢江水야
 우리 疆土 써나가니 춤아 잇지 안꼇스리
 到處에 無數호 더 魔鬼를 다 잡고야
 (捉魔生) 1909, 4, 15, 대한매일신보 제1071號

· 남산에 눈 놀니는 양은 白松鵲이 죽지 찌고 당도는 듯
 漢江에 빅 쓴 양은 江上 두루미 고기 물고 넘노는 듯
 우리도 남의 넘 거러 두고 넘노라 불가 호노라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상·하, 아세아문화사, 1992.

· 漢成에 春樹綠하고 漢水에 春光開라
 一葉片舟 흘러 저허 十里 沙場 내려갈 제
 問노라 無綿巨 송사리를 一網打取

(大韓民報, 1910, 3, 23. 제229號)

· 漢江水 넓은 물에 一葉 漁船 흘러 즈어
 굴근 고기 잔 고기 함불 나가다가
 저 건너 柳橋邊에 막저로니 집으로

· 술 먹지 마자 하고 漢水 두고 김흔 盟誓
 님 이별 마자 하고 春山 갖치 굿은 언약
 두어라 多情 楊柳 章臺路에 美人 盃야

(大韓民報, 1910, 4, 16. 제249號)

· 白岳峯石은 巖巖 磊磊 漢江 流水는 溶溶 양양
 此石氣 此水勢는 우리 民族 活畫일세
 두어라 疾風 暴雨인들 於余何傷

(大韓民報, 1910, 5, 1. 제212號)

· 腹中에 쌓인 懷抱 누를다려 說話하리
 三角山 筆峰되고 漢江水로 삼아
 오늘날 青天 一張紙에 그려다가 우리 님께

· 終南山이 砥礪 되고 漢江水가 如帶토록
 山萬歲 水萬歲에 萬萬歲之 皇基로다
 그 中間 二千萬 우리 萬姓 與국萬萬歲

(대한 1919, 7, 30. 제 337호)

· 언덕 문희여 조본 길 메오지 말며
 두던이나 문희여 너를 구멍 좁히려는 水口門
 득라 豆毛浦 漢江 露梁 銅雀 龍山
 麻浦 열흘목 든니며 누리 두저 먹고 차두저
 먹는 바올히 목이 힘금커라 말고 大牧官 女妓와
 小各官 酒拏년들이 와당탕 내다라
 두 손으로 붓잡고
 와드드 써느니 내 무스 거시나 힘금코야자
 眞實로 그러곳 흘자시면 愛夫될가 호노라

· 偶然이 잠두에 올라 漢陽 城內를 구버보니
 인왕 삼각은 虎踞 龍蟠勢로 北極을 꺾어 있고 漢江
 終南은 與天地無窮이라
 지금의 우리도 聖君 만나 安過 泰平

· 이 몸 허러내여 낸 물의 썩오고져
 이 물이 우러 네어 漢江 여홀 되다 흐면
 그제야 님 그린 내 병이 험험 법도 있느니

(鄭澈)

· 南山 松柏 鬱鬱蔥蔥 漢江流水 浩浩洋洋
 聖世子 萬年壽 가지스 太平으로 누리실 제
 우리는 康衢의 逸民되야 擊壤歌로 질길져

· 남산은 천연산이요 淸江수년 만연수라
 북악은 억만봉이요 금주임은 만만세라
 우리도 승주님 피압고 동낙퇴평 91)

(2) 남한강과 한시

본장(本章)에서는 《여주군사》(2005)에 수록된 <문학에 나타난 남한강> 중에서 남한강 나무의 삶과 뱃놀이, 풍류, 기녀 등을 노래한 한시만을 취사선택해 부연·보첩하기로 한다.

원래 여강은 시인 묵객들이나 명유·정치인들이 이곳 산천과 명승을 즐겨 찾았다. 그러나 우리는 한강의 수세(水勢)를 이용한 장한 전투역사 곧, 임진왜란 때의 여강전투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강전투는 강원도조방장(江原道助防將) 원호(元豪)가 여강에서 일본군을 격퇴시킨 싸움을 말한다. 일본군이 침입하자 원호는 수하의 병력을 이끌고 평해에 다다랐으나 적병이 이미 조령을 넘어 섰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하여 여주에서 향병을 모집한 뒤, 1592년(선조 25) 5월 여강 벽사(신록사·벽절)에 둔진하고 나무를 왕래하는 일본군을 차단하고, 그들의 장물(裝物)을 빼앗아 행계소(行在所)에 보냈다. 6월에는 구미포(龜尾浦)에 둔진한 일본군이 민간인을 약탈하자 주병(州兵)을 초집(招集), 그들을 급습하여

91)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상·하 참조.

많은 일본군을 사살하였다.

이 같은 전공으로 원호는 여주목사 겸 경기·강원도방어사로 승진하였다. 그 뒤 마탄(馬灘) 방면에서 일본군이 출몰하여 약탈과 방화를 자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천부사 변응성(邊應星)과 모의하여 마탄에 주둔한 적을 다수 살해하여 승리를 거둠으로써, 원주의 적로(賊路)를 봉쇄할 수 있었고, 이천·여주·양근·지평 사람들이 적의 예봉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원호가 강원도순찰사 유영길(柳永吉)의 명을 받고 김화싸움에 참가했다가 전사하니 여강의 방어선은 이때부터 무너지게 되었다.⁹²⁾

강원도방어사 원호의 공훈이야말로 가히 권율장군의 행주산성대첩에 비견할 만한 것이려면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버린 인물이 되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면, 여강의 호국적 역할을 여기 잠시 접어 두고 여강에 우거했던 이들이나 유배자, 명유들의 한시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원래 여강은 원주의 섬강이 충주의 달천과 만나는 자산(紫山)의 근처에서 시작하여 금당천·양화천·곡수천·북하천·품실천 등을 받아 안은 채 유유히 흘러 산북리 앞까지 흐르는 강을 일컫는다.

여강은 자연풍광이 아름다워 중국의 서호에 비유하기도 했고, 국내적으로는 평양의 대동강에 비유하기도 하였으니, 여강의 여주는 소위 대동강의 평양, 서양강의 춘천과 더불어 3대강촌의 하나로 손꼽혀 왔다.

그런데, 강의 상류(上流)를 단강(丹江)이라 호칭했고, 중간을 여강(驪江), 하류(下流)를 기류(沂流)로 부르고 있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여강이라 한다.

단강의 애칭은 단암과 자산에서 유래한 것인데 자산의 위치는 섬강과 달천이 만나서 강천리로 향하는 합류 지점에 있는 곳으로 산이 작지만 험준하고 산 아래 합류하는 곳이 물이 깊어서 경관이 아주 수려하다.

이곳 사람들이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산 그림자가 잠겨 있는 물속을 자세히 살펴 보면 천도복숭아가 빨갭게 달린 나무들이 산 가득하여 붉은 산이라 부르고 있으며 그 복숭아는 이 산에 살고 있는 신선이 양식으로 하기 위해 심어 둔 것인 바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물속에서만 그림자로 나타나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숭아를 따서 먹기만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미루어 볼진대 경관이 수려하니 신선이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석복의 시 속에 신선이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도화수(桃花水)로 올라가다.”, “도화수가 불어나다.”, “빨리 봄이 되면 도화수에 놀고 싶다.” 등 복사꽃 이야기가 많이 나

92) 이장희, 「여강전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 98.

온다. 그리고 옛 사람들의 말에 신선이 사는 곳에는 좋은 약을 항상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불그스름한 구름 같은 연기가 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신선이 사는 곳은 자운동천(紫雲洞天), 단산(丹山), 단구(丹丘)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산을 신성시하여 자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단강이란 이름도 자연스럽게 붙여진 것이다.

충주시 양성면 단암(옷바위)리가 있다. 그곳 사람은 그곳 앞에 있는 작은 산을 공양왕산이라 부르는데 공양왕이 피난을 가고 있는 중에 추격이 급하자 붉은 옷을 입은 신하가 옷을 벗어 바위에 걸어 두고 위장을 하였기 때문에 추격을 따돌리고 급함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여 그 후로 옷바위라 부르게 되었고 한자로 단암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부론면 단강리가 있다. 그곳 노인들은 단종이 영월로 갈 때 이곳에 쉬어 가며 물을 마셨다 하여 단정(端井)이라 하였는데 마을이 통폐합되면서 단정의 단 자와 강촌의 강 자를 합하여 단강이 되었지만 단(端)자가 단(丹)자로 변하여 단강이 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자산에서 이호리까지를 단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민진원이 우만리 출신인데 호를 단암으로 하였고,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의 시 중에 <강천을 지나 여주로 가다>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상류로 올라가니 한 도시가 있는데	上流一都會
두 강 사이에 천 실은 됃직 하네	千室兩江間
큰 골짜기는 정기를 모아 두었고	大壑函元氣
중류에는 잘려진 듯한 산이 있네	中流有斷山
밝은 노을은 학수(鶴岵)에 떠 있고	晴霞浮鶴岵
병풍 같은 돌은 우만을 감싸고 있네	奇石抱牛巒
문득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便欲携家入
풍선 가득 봄바람 안고 돌아오네	春風掛帆還

다른 선인들의 시제에는 단강을 노래한 것들이 별로 많지 않은 반면 석북은 단강을 노래한 시제가 아주 많다. 그 이유는 법정과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가 주로 단포이기 때문이다. “단암의 주중에서”, “단포로 향하다”, “단포에서 법정과 약속했는데 오지 않다”, “돌아 오면서 섬강을 돌아 보다.” 등등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석북은 영조 때의 시·서·화로 유명한 풍류객인데 영릉 참봉으로 제수되어 와서 3년이란 임기 동안 오갑산의 고승 법정(法正)와 시주(詩酒)의 벗이 되어 단강을 무대로

자주 선유(船遊)를 즐기며 노래한 시만도 수십 편이다.
그럼 법정과 주고받은 시 몇 수를 옮겨 보기로 한다.

법정을 보내고 관사에 돌아와 생각한다

소를 타고 온 법정이여	騎牛丁法正
하루만 자고 충주로 가버렸네	一宿向忠州
수목이 많은 속에서 이별했는데	萬木深中別
홀로 등불 앞에서 시름 하네	孤燈見始愁
언제나 꽃이 피고 풀이 피면서	何時化滿樹
얼음 풀어지고 배가 다니게 되면	倒處水通舟
벽절과 청심루에서	壁寺清樓興
그대와 같이 한 열흘 놀고 싶다네	携君十日遊

이 시에서 두 사람의 사이를 짐작할 만하다. 이 두 사람은 잠시라도 보지 못하면 몸살이 나서 살 맛이 없을 정도의 지기 중의 지기라 말할 수 있다. 강이 얼어서 배가 다닐 수 없자 소를 타고 찾아 오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하루 빨리 얼음이 풀어져서 배를 타고 오기가 수월하기를 바라며 하루 빨리 둘이 만나 시 짓고, 술 마시며 한 열흘 즐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법정의 화답하는 시를 보자.

〈섬강에서 법정을 만나 같이 배를 타고 신륵사로 내려오다〉의 시제로 주고받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한 수를 소개해 본다.

섬강에 돛 높이 달고	蟾江浮夜榜
멀리서 온 친구 싣고 오네	遠載故人歸
벽절에 오니 처음 종이 울고	到寺初動鍾
누에 오르니 비는 그치려 하네	登樓雨欲稀
늙어 갈수록 호해의 뜻을 거두고	老將湖海志
봄이 오면 같이 벽나의를 입세나	春共薜蘿衣
낚싯대나 하나 구하여 가지고	行買一竿竹
동대에 앉아서 낚시나 했으면	東臺上釣磯

신록사에서 놀기를 약속하고 배를 가지고 단포까지 가서 법정을 만나 같이 오고 있다. 이 주고 받은 시에서도 두 사람은 하늘이 주신 맞수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석복의 시에 벽절에 오니 처음 종이 울고”는 밤중임을 알 수 있고 “누에 오르니 비는 걷히려 하다.”에는 새벽이 다가 온다는 의미를 암시한 것이다.

밤을 지새우며 놀고서도 모자라서 벼슬이고 명예고 잡다한 것들은 모두 걷어치우고 봄옷을 같이 입고 동대에서 낚시나 하면서 같이 있기를 원하고 있고 법정도 이 땅에 우리가 없어도 이 같은 자리는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으니 아마도 두 사람 사이는 죽고 못 사는 20대 연인들보다 한층 더 간절한 것 같다.

두 사람이 남긴 걸작은 수 없이 많지만 단포에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혹은 만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기도 하고 혹은 법정이 오지 않아서 못내 아쉬워하며 쓸쓸히 돌아오는 두 편을 골라 보았다.

〈법정을 단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기에 관부를 대동하고 눈길을 뚫고 가다〉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누렁이 소와 누렁이 말을 타고 온 것은	黃牛黃馬兩翁騎
산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요	爲有山陰昨夜期
십리 단암에 눈을 밟고 온 이 풍류는	十里丹巖江上雪
옛사람 풍류집에 올려도 무방하리	此行應入古人詩

소타고 말타고 눈길을 달려와 만나는 이러한 풍류는 옛 사람들이 모아둔 풍류집에 올려 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

법정과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아니하다

그대와 만나기로 단포로 약속했기에	與君期丹浦
눈을 뚫고 단포까지 달려 왔는데	雪中丹浦來
단포에 와도 그대가 보이질 않아서	丹浦不見君
저무는 강으로 쓸쓸히 돌아가고 있다네	日暮江上回

법정이 오기를 고대 하다가 오지 못하자 만나고 싶은 심정을 시에 담아 두고 저물어 가는 강으로 쓸쓸히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과 그 심정이 지금도 눈 앞에 그림처럼 펼

쳐진다.

여강이란 이호리에서 양화나루까지를 이름이지만 시제에 자주 등장하는 풍광들을 살펴 보면 청심루, 신록사, 동대, 마암 순이다.

여강을 노래한 시선(詩仙)들이 너무 많지만 여주 출신으로 고금과 자타가 인정하는 백운거사 이규보를 빼놓을 수는 없다.

고향에 돌아오니 후배인 향교 유생들이 선생을 위해 배도 준비하고 기생도 동원하여 뱃놀이에 나섰다. 선생은 술 있고 벗 있고 거기에다 기생까지 있으니 시선의 본색인 끼가 발동한다.

계도 난주로 푸른물 가르는데
 창공을 배경한 여인이 더욱 아름답구나
 쟁반에는 배가 둥그런 계도 잡아 놓고
 그물 속에 목 없는 병어 같은 놈도 있네
 십리 꽃길이 한 폭의 그림인데
 이 풍경이야 어찌 값으로 논하겠소
 풍악 소리에 익숙해진 갈매기들이
 배 가까이 와도 피할 줄 모르네

桂棹蘭舟截碧漣
 紅粧明媚水中天
 釘盤纔見團臍蟹
 掛網還看縮項鰻
 十里煙花真似畫
 一江風月不論錢
 沙鷗熟聽笙歌響
 飛到灘前莫避船

선생은 당신의 명망과 지위로 제도권 속에서 속박되어 있다가 자연으로 돌아와 보니 너무도 좋았다. 예쁘게 하고 간드러지게 노래하며 춤추는 여인들이 어찌면 당신이 제도권 속에 있을 때와 너무도 같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대단하고 예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기에 정일품 종일품 하면서 품계를 매길 수 있었지만, 저 강 언덕에 흐드러지게 핀 꽃이라든가 자기 영역으로 침입한 인간에게도 아무 거리낌 없이 날고 있는 갈매기들, 멋대로 피고 멋대로 나는 이 풍경이야 어찌 값으로 논할 수 있으리요 하고 노래하는 그 심정을 많은 위선으로 포장된 우리들이 한번쯤 음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은 목은의 시로써 서두에서 반만을 소개한 바 있지만 한 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이렇게 좋은 여주로 낙향해야겠다는 강한 뜻을 내재하고 있다. 세상의 잡다한 미련을 버리고자 한 몸부림의 흔적이다.

우주는 무한하지만 인생은 끝이 있는 법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망설이고 있소

天地無涯生有涯
 浩然歸去欲何之

여강의 굽이굽이 산이 그림 같은데
반은 단청 같고 반은 시와 같은 것을

驪江一曲山如畫
半似丹青半似詩

다음은 모재 김안국(金安國) 선생의 시를 선택해 보았다.

모재는 여주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서울에서 출생했다는 설도 있으나 이천에서 10년, 이포에서 9년 해서 인생의 반을 이곳에서 우거하였고 많은 후진을 양성하였기에 여주 최초의 서원인 마암서원을 지어 선생을 모셨다.

지금은 물론 이포의 기천서원에 주향으로 모셔져 있지만 선생의 부조위(不祧位)가 이포에 있고 선생의 종택이 이포에 살고 있으니 여주 사람이라 하여도 무방하다. 선생의 시 중에 여강을 노래한 시제가 많지만 두 편만 골라 보았다.

봄 늦은 강 언덕에 철쭉이 만발한데
누구를 위하여 교태를 부리며 웃는고
시인은 술에 취해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바람을 안고 별안간 지나가 버렸네

春後江邊虫躑躅花
爲誰容冶暎平沙
詩人醉臥無餘興
不覺風帆瞥眼過

강 언덕에 흐드러지게 핀 철쭉이 저마다 한껏 뽐내고 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 득세했다는 사람들이 방약무인으로 아첨하며 뽐내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연상되었을 것이다.

모재는 사화(士禍)와 권력 싸움에 환멸을 느끼고 한적한 시골에 낙향하여 후진을 교육하고 소학을 실행하며 소학동자라 자처하신 분이니 화려한 싸움판이 관심이 있을 턱이 없다. 그래서 살다 보니 세월이 사정 없이 지나갔다고 당신의 처지를 노래한 것이다.

가을바람 강상에 옥피리 들려오는데
붉은 단풍 황색 국화가 창파에 비치네
옛날에 보던 경광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 몸은 백발로 변해가는 것을 어찌랴

江上秋風吹玉笛
赤楓黃菊映清波
舊時景物依然在
白首塵途奈老何

이 시는 영릉에 제관으로 왔다가 뱃길로 돌아가면서 읊은 시다. 세상이 바로잡혀지면서 옛 먼 날에 아는 얼굴들이 조정에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당신은 늙어서 쓸모가 없다고 자조하는 시다.

청심루는 여주를 대표하는 관루이기 때문에 명인들의 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고려 문신 주열의 시를 우선 옮겨 보기로 한다.

한바퀴 밝은 달이 구름 끝에 솟았는데	一輪明月湧雲端
강 속에 비친 모습이 많이 본 얼굴이네	鏡裏如逢舊識顏
쌍으로 선 나무는 보개가 기운 듯하고	寶蓋影傾雙立樹
사방으로 둘러있는 산은 미녀의 눈썹 같네	修眉暈倒四回山
잉어는 용왕님께 편지를 전하고	鯉傳尺素滄茫外
검은 용은 굴속에서 여의주를 기르네	驪養明珠墨暗間
시를 짓기는 밤중이 지나서 더욱 좋으니	吟到五更更奇絕
시제 없다 핑계로 쉬지는 말게나	莫教風物片時閑

구름 끝으로 솟아오르는 달이 강 속에 비쳐 왔을 때 옛부터 안면이 많이 있는 사이다. 그리고 곁에 쌍으로 서 있는 나무는 마치 임금이 행차할 때 사용하는 일산처럼 기울어 있고 뺨 둘러 있는 산들은 꼭 미녀의 눈썹 같다고 묘사하고 있다. 잉어는 편지를 전하고 검은 용은 여의주를 품고 있다는 말은 물이 깊고 많아서 그럴 것이란 추상이다. 이태백이 죽자 강남에 풍월이 없어졌다고 송나라 사람들이 말했는데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은 시 지을 소재가 다 하였다고 쉬지를 말고 밤중이 되면 다시 새로운 소재가 더욱 많아질 것이니 소재가 다 했다는 핑계로 쉬게 되면 청심루에 시의 소재가 없다는 소문이 두려우니 잠시도 놀지 말고 시를 지으란 뜻이다.

다음은 점필제 김종직의 시 중에 <청심루 운을 차운하다>가 있다.

초가집 울타리에 배를 매어 두었는데	維舟茅舍棘籬端
물고기 산새가 나를 알아보겠나	漁鳥何曾識我顏
병 후에도 충분히 나들이할 만한데	病後猶能撰杖屨
유배길에 겨우 이 좋은 강산을 구경하네	謫來纔得賞江山
십 년 동안의 세상사는 괴롭고 고단한 것이	十年世事孤吟裏
가을의 잡목 숲처럼 얼룩얼룩 하다네	八月秋容亂樹間
잠시 난간을 기대고 북쪽을 바라보는데	一篙倚欄仍北望
사공의 재촉이 잠시의 한가도 봐주지 않네	霎師催載不教閑

제목의 부제를 읽어 보면 “병후에 선산으로 부처되어 가면서 배로 여주를 지나가는 중에 나막신으로 청심루에 올라갔다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배로 돌아와서 충충히

쓴다”로 되어 있다.

다음은 우암 송시열의 시를 옮겨 보기로 한다. <깊은 밤 청심루에 앉아 념릉(寧陵)을
침망하면서>라는 시에는 효종(孝宗)에 대한 애절한 충정이 배어있다.

우리 님 덕의를 누가 능히 따르고	吾君德義孰能追
밤 깊은 차가운 강루에서 이야기하는 중이요	江閣寒宵晤語時
백발 구신 중에 오직 신이 남았는데	白首舊臣惟我在
창오의 고목들이 누구를 위하여 슬퍼할고	蒼梧古木爲誰悲
하느님은 인자하신데 재요가 거듭되니	天心仁愛災妖薦
나이 많은 구신들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古老憂傷血淚滋
밤 깊어 달이 지나 님의 능침이 보이질 않아서	坐久月沈陵柩暗
어디를 향해 아뢰어 올릴지 알지 못하겠소	不知何處詭陳辭

우암이 예송으로 유배 가는 길에 청심루에 자면서 우리 임금님의 덕의는 누구도 따를 자 없다고 밤을 지새우며 말하고 있다. 당시 중요 참모들이 모두 죽고 나 하나만 남았다고 슬퍼하면서 오창의 고목들이 누구를 위하여 슬퍼하느냐고 묻고 있다. 오창이란 순임금이 죽은 곳인데, 효종의 죽음을 지금의 집권 세력들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느님의 본마음이 인자한 법인데 현 정국이 비정상적으로 엉켜 돌아 가고 있으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두 늙은 사람들인데 하나 같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한다. 오래 앉아 있자니 달은 지고 능침이 캄캄해서 보이질 않으니 어디를 향하여 아뢰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점점 압박해 오고 있는 것이 죽음을 직감하였기에 앞으로는 이렇게 앉아서 아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한탄이다. 천고의 한을 안고 유명을 달리한 군신간의 애절함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권수암(權遂庵) 선생의 <청심루>를 보자.

강루의 맑은 시야 십분 기이한데	江樓清眺十分明
저 멀리 용문산이 술잔에 들어왔네	天外龍門影到
가랑비 잠깐 추녀 끝을 지나고 나니	微雨乍從 厓角過
한조각 봄소식을 살구꽃은 알겠지	一春消息杏花知簷

수암 선생은 우암의 수제자로 영의정을 지내셨다. 이 시 외에도 여주에 대한 많은 명작을 남겼다.

맑게 갠 날 시야가 분명한데 용문산 그림자가 술잔에 거꾸로 들어와 잠겼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봄비가 살짝 지나갔나 했는데 살구꽃이 벌써 알고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퇴계 선생의 시를 들어 본다.

여주 목사 이공순 · 훈도 이번과 같이 신록사에서 노닐다

서울의 풍진이야 꿈같은 근심인데	京洛風塵一夢悠
그대들 덕분에 잠깐 청류를 즐기고 있네	從公聊作精中遊
강산의 새벽 경치는 두 눈의 그림이요	江山曉作雙眸畫
누각의 시원한 바람은 유월에도 가을이네	樓閣清生六月秋
수리로 찾으면 이치의 근본을 알 것 같고	問數可能探理窟
신선을 말하자니 시류는 말하기도 싫어지네	談仙直欲謝時流
가벼운 배로 조용히 돌아오는 길에	歸來穩放輕舟下
나도 백구 같아진 것을 한없이 기뻐하네	自喜猶能追白鷗

퇴계는 서울의 복잡한 곳에 있다가 친구의 덕분에 신록사 맑은 경치에 놀고 있으니 한없이 좋다. 새벽에 두 눈에 비치는 것은 모두 그림 같고 누각에는 하도 시원해서 유월인데도 가을 같다고 했다. 주역으로 숫자를 잘 추산하면 이치의 근본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신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니 잡다한 세속사는 도무지 생각하기조차 싫다.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배를 타고 오는데 자연과 같이 갈매기와 같이 자연속의 한 덩어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몹시 기쁘다고 하였다.

다음은 율곡 선생의 <밤의 동대에 앉아 이산해의 운을 차운한다>를 들어 본다.

조용한 밤 맑은 하늘에 갠 달이 걸렸는데	夜靜江天霽月懸
풀에는 벌레 우는데 물새는 자고 있네	蟲音在草水禽眠
가을의 시객이라 만감이 교차하는데	騷人自是秋感多
소나무 아래 바위에 쓸쓸히 앉아 있네	松下寒巖坐悄然

율곡은 십만 양병을 권하다가 아무도 동조하는 이 없자 벼슬을 버리고 선산으로 동

생을 찾아가는 길에 이곳에서 밤을 새우며 나라의 앞날을 근심하고 있다. 한없이 조용한 밤 끝없이 맑은 하늘에 둥글고 밝은 달이 휘영청 중천에 와 있다. 풀벌레는 우는데 물새는 자고 있는 것이 당신은 혼자서 십만 대병을 기르자고 우는데 명색이 대신들은 자고 있으니 답답하고 복잡한 생각을 아마 가을이라서 그렇겠지 하고 자위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월헌>이란 시제로 노래한 서산대사의 시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왼손으로 나는 번개를 잡고	左手捉飛電
오른손으로 바늘귀에 실을 꿰네	右手能穿鐵
산 구름은 안정을 낳게 하고	山雲生定眼
강달은 선심으로 들어가게 하네	江月入禪心

대사는 법력이 높은 분이지만 눈을 감고도 자연의 법칙을 볼 수 있다고 노래한다. 구름이 뭉개뭉개 피어나는 것을 보고 도를 보는데 의심이 없는 눈을 가질 수 있고 강달을 보다보면 둥글게 밝아오는 마음, 즉 선으로 들어가는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단한 경지의 수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대 하면 이제 홍양호의 시를 뺄 수 없다.

뒀을 끌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曳纜遵芳渚
배를 묶어두고 옛 대에 오르네	維舟上古臺
강촌의 집은 모두 북쪽으로 향했는데	江村皆北向
강물은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네	春水自東來
돌문이 열리며 이도가 나왔는데	石破驪圖出
산은 북두자루에 연하여 열었네	山連斗尾開
가슴에 속진을 씻어버리고 나서	胸襟聊一濯
가벼운 기분으로 술잔을 깊이 들어 마시네	隨意倒沈杯

강촌이 북으로 향했다는 것은, 강 건너 집들이 북향집이 많지만 나라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돌문이 열리며 이도가 나왔다는 말은 마암의 전설을 인용한 것이다. 여도를 왜 이도라고 했느냐고 하겠지만 이로 읽어야 맞다. 이제 시는 그 격조가 높이 평가된다.

팔대숲[八藪]

옛부터 패강에 숲이 많다 들었는데
강가 호반에 좋은 숲이 울창하네
오래 전에 배를 타고 여강으로 가다가
오래된 괴목에다 배를 매어 두었지
위에는 신선의 궁이 있고
아래에는 용왕부가 자리하고 있다하네
멀리 운몽수를 상상해보니
서로 비슷해서 겨를 만하겠네
나는 초나라 굴원은 아니지만
어부를 보지 못하란 법은 없지

泚多古名藪
盤鬱江之滸
昔我揚船過
繫纜古槐樹
上有神仙宮
下有蛟龍府
緬憶雲夢樹
佰仲可誇
我非楚醒者詡
獨不見漁父

한강을 패강 또는 열수라 부르기도 한다. 운몽수는 중국 양자강의 동정호 남쪽인데 강가로 우거진 괴목들이 팔구백 리 정도로 울창하게 서 있다는 것이다. 여강에도 수십 리 울창한 숲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변하고 말았다.

연촌(煙村)

그대가 미처 살아보지 못해서
시골의 풍치를 알지 못하였네
그대가 지금 이곳에 오자마자
저녁연기가 풍성하게 나오고 있네
좌우에 죽도 있고 밥도 있고
농요와 회적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네
지난달에는 세금도 감했고
이달에는 부역도 면해주었네
격양가 부르며 고사터에서 마시는 것이
순수한 농민의 즐거움이라네

使君昔未來
田里不土着
使君既下車
豐穰煙火夕
左右殖又粥
村謳雜農笛
去月減官租
今月蠲軍役
擊壤歌衢樽
愷悌民所樂

그대가 농촌에 살아보지 못해서 농촌 맛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대접하고 싶어 굴뚝에 연기가 풍성하게 피어오르고 상에는 죽

도 있고 밥도 있고 농악이 한바탕 어우러지는데 북소리 썰과리 소리에 회적소리까지 한데 어우러져 멋진 한마당이 연출되었다. 거기에 맞춰 격양가 부르며 마당에 둘러 앉아 권하고 마시는 맛이란 세상에 이보다 더 이상 좋은 잔치는 없다는 것이다.

옛날에 어진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세금도 감면하고 부역도 감해 주었다는 데서 당시의 실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기류(沂流)는 양화나루에서 전북리까지를 이른다. 그 증거로 모재 김안국 시에 <양화나루에서부터 여흥의 경계이네>라는 시가 있다.

본래 천령현으로 군세와 인물들이 대단하였는데 당시 영릉이 여흥으로 옮겨 오면서 합병되어 여주가 되었지만 이곳 사람들이 합병 초기에는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기류에는 많은 유적이 있었으나 모두 인물하여 없어지고 전설에 의해 조금씩 전하고 있다.

이곳에는 팔영이 아주 많은 편이다. <금사팔영>이 두 편이나 되고 <이포팔영>, <궁촌팔영>, <사전팔경> 등이 있고 누대로는 침류정, 옥우당, 봉서정, 범사정, 망포정, 금강루, 침벽루 등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지금은 없다.

다음은 모재 김안국의 <금사팔영>을 살펴 보자. 모재가 윤서파에게 준 팔영만도 두 편 이상이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옮긴다.

동호범징(東湖帆檣)

범선이 매일같이 가볍게 오가는데
서계에 은자 있는 곳을 다투어 알려하네
복사꽃일랑 부디 물 따라 보내지 마라
고기잡는 어부들이 찾아올까 두렵다네

風帆日日過如奔
爭識西溪有隱村
莫遺桃花流水出
怕逢漁客解尋源

동호란 금사리 앞 한강을 말함인데, 무릉도원을 빗대어 어부들이 복사꽃을 따라 찾아올까 두렵다고 하였다. 이런 고사는 도연명의 무릉도원에서 나오는 말이다. 세상에 알려지면 별의별 속객이 모두 찾아움을 경계하는 말이다.

남계수조(南溪垂釣)

고기 맛은 알아도 미처 어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뛰노는 고기무리를 정신없이 보고만 있네

知魚未暇辦濠梁
耽看遊鱗耀鏡光

장난삼아 낚시줄을 물속으로 던졌더니 戲把織綸投日夕
우연히 올라온 은빛이 술상을 돕고 있네 偶然銀絲佐賓觴

고기를 먹을 줄은 아는데 투망이나 통사리 같은 어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낚시를 무는 놈이나 잡아먹지 그물이나 통사리로 싹쓸이 식으로 잡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고기를 먹는 것은 탐을 낼지 몰라도 잡는 데는 별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봉암조망(鳳岩眺望)

층층바위 그림같이 천길이나 솟았는데 層巖如畫聳千尋
한구비 돌아앉으니 난세가 푸른 못을 굽어보네 一曲鸞環俯碧深
구름 걷히고 뾰족한 산들이 하늘가에 둘러섰는데 雲盡山尖天宇迴
몇 번이나 돌아와야 깊은 회포를 풀 수 있을고 幾回凝立山幽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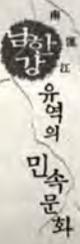
용담욕영(龍潭浴泳)

가벼운 봄옷 입고 망건을 벗어버리고 輕衫初試岸輪巾
맑은 물 하나 가득 꽃 비친 모춘일세 花覆澄潭正暮春
돌아오면서 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欲罷歸來空浩詠
다시는 진흙탕 속으로 가지 말아야지 此身寧更澆街塵

이 시는 《논어》의 “욕호기 풍호무우(浴乎沂 風乎舞雩)”에서 나온 말이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뜻을 물었다. 모두가 대답하기를 어려운 정국을 만난 나라에 가서 정치를 맡아 한바탕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중점만은 다르다. “늦은 봄 봄옷을 갈아입고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무우에 가서 바람 쏘이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 하였다. 공자도 “나도 너와 같이 하리라.” 하여 유명하다.

모춘에 가벼운 봄옷 입고 망건을 벗어버리고 용담에 목욕하고 노래 부르며 돌아오면서 다시는 진흙탕 정치판에는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한다. 기류(沂流)라는 ‘기(沂)자도 여기서 나왔다.

대숲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옷깃을 헤치고 낮잠을 즐기는 이 신선 같은 재미를 서울에서 체면 때문에 정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 벼슬아치들이 어찌 짐작이나 하



겠느냐고 “진짜의 멋이 이것이다.”라고 노래한다. 다음은 범사정을 보자.

범사정(泛槎亭)

한가롭게 뚝뚝 떠 있는 범사정은	閑閑泛泛一仙槎
가야할 곳도 없어서 창파에 맡겨 두었네	無滯無心任碧波
아무 것도 실은 것이 없으니 풍랑도 걱정도 없고	虛載豈虞驚浪覆
동풍만 불어주면 은하수에나 가볼까 하네	東風輕颺上天河

범사정은 모재 선생의 정자로 이포 농협 앞 느티나무 근처라 짐작된다. 기천서원에 “모재서원을 범사정 우륵에다 옮겨 세운다.”라고 하였으니 말이다. 예전에는 강물이 이곳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완전한 호수 같아서 물이 넓고 깊었다 한다.

선사란 신선이 타고 다니는 떼배를 말함인데 물에 떠 있는 떼배 같은 정자는 어디로 가겠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결의 출렁임에 따라 흔들흔들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 인간세상에는 가볼 만한 곳이 없고 동남풍이 불어주기만 하면 하늘의 은하수에나 가볼까 한다고 하였다. 이쯤 되면 고인들의 풍류가 어디까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시의 문맥으로 보아 강상 누각으로 생각된다.

서애 유성룡과 파사성은 남다른 감회가 있다. 임진란 당시 왜군의 일대는 죽산·용인을 거쳐 서울로 향했고, 일대는 충주·여주로 해서 서울로 집결했다. 그 후 경기감사 변응성이 파사성을 견고하게 수리하여 수도방어에 써야 한다고 주청하였다. 서애는 당시 영의정으로 그 계획에 찬성을 하면서도 전쟁 후라 힘이 부족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황해도 승병총섭인 의암이 전쟁이 끝나 갈 곳이 없는 승병들을 모아 이 성을 수리하여 제법 규모가 완전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서애가 달려와 보니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의암과 하룻밤 같이 자고 지은 시이다.

자이호소양화(自梨湖遊楊花)

노를 두드리며 양화나무를 지나는데	鼓棹楊花去
일엽편주가 봄바람에 가볍구려	微風一葉輕
고기 잡는 일도 생업일 바에는	捕魚元可業
하필 벼슬만이 영화스러운 일인가	結駟豈專榮
여울이 서둘러 흐르니 비오는 소리 급하고	灘轉雨聲急

못은 비었기에 산 그림자 가득하네
 방초 우거진 쪽을 구경하노라니
 나는 왜가리 배 돛대를 치고 가네

潭虛山色盈
 忽看芳草外
 飛鷺掠舟楫

풍고는 안동 김씨 세도의 시호가 되는 분이다. 순원왕후의 아버지로 영안부원군을 봉 받았고 현암서원에 봉안되어 있다. 원채 문호의 집안에서 성장하였기에 시법이 아주 포괄적이다. 여울이 급하게 흐르니까 물소리가 마치 아우성 같고 못이 비어 있으니까 모든 산 그림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한 세상을 요리한 정치인다운 말이다. 민심이란 급하게 몰아 부치면 반드시 저항의 아우성이 있게 마련이니 비우고 겸손해야 민심이 모여 온다는 교육적인 뜻이 숨어 있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왜가리가 돛대를 치고 갔다는 뜻은 잠시 자만에 빠져 한눈 팔다보면 치고 들어오는 허점이 있다는 아주 정치적인 뜻이 담겨 있다.

다음에는 여강 다음에 나오는 광진나루와 동작나루에 관한 한시를 최완수의 《겸재의 한양진경》에 수록된 겸재의 산수화 비평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 광진(廣津)

현재 위커헬 호텔과 위커헬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는 광진구 광장동 아차산 일대에는 한강을 건너는 큰 나루 중 하나인 광나루가 있었다. 광나루가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의정부·동두천·포천 쪽에서 내려와 한강을 건너 광주·여주·충주·원주 쪽으로 가려면 이 나루를 건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니 우리 역사가 시작될 무렵 이 나루도 함께 생겨났을 듯하다

이곳 풍납토성이 하남위례성이었다면 백제시조 온조왕(溫祚王·서기 18~서기 27)이 백제를 건국하면서부터 광나루는 한강나루 중 가장 큰 나루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큰 나루 또는 너른 나루라는 뜻으로 광나루라 부르지 않았나 한다. 이로 말미암아 백제 개로왕 21년(475)에 고구려 장수왕(413~491)이 하남위례성을 함락하여 백제가 도읍을 공주로 옮긴 뒤에도 나루 이름만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물론 광주(廣州)라는 지명도 백제 때 서울이 있던 큰 고을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에 광주로 건너가는 나루라는 뜻도 겸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가 한양을 수도로 정하면서 이 광나루의 기능이 되살아나게 되었으니 광주를 거쳐 충청좌도와 강원·경상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아차산과 한강이 어우러지는 아리따운 경치와 함께 이곳은 별장지대로 각광을 받게 되

어 권문세기들이 다투어 아차산 기슭에 별장을 지었다.

특히 검재가 살던 진경시대는 평화와 안락이 절정에 이르러 서울의 상류층이 아취있는 풍류생활을 맘껏 누리고 있었다. 검재는 그런 시대 상황을 광나루진경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한강 유람선을 타거나 천호동 쪽에서 바라보면 아차산의 층진 모습이 이와 똑같다. 다만 이 그림에서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운치 있는 한식 기와집들이 크고 볼품 없는 현대식 고층건물로 바 것이 다를 뿐이다. 당시도 세력 있는 집안의 별서(別墅)들이 각기 터 잡고 있었던 듯 몇 구역으로 나뉘어 혹은 노송(老松)에 둘러 싸이고 혹은 잡수림에 둘러 싸여 고루거각(高樓巨閣)을 자랑한다. 이곳에서 검재와 친분이 두터웠던 소론 탕평(蕩平) 재상(宰相) 학암(鶴巖) 조문명(趙文命, 1680~1732)·귀록(歸鹿) 조현명(趙顯命, 1691~1752) 형제의 부친 백분당(白賁堂) 조인수(趙仁壽, 1648~1692)가 살며 정관재(靜觀齋) 문하에서 배웠다 했으니 등성이 위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혹시 그의 별서였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백분당의 장자로 학암과 귀록의 백씨(伯氏)인 귀락정(歸樂亭) 조경명(趙景命, 1674~1726)이 이곳을 자주 드나들었던듯, 삼연(三淵)의 문인(門人)으로 진경시(眞景詩)의 의발(衣鉢)을 전수 받았던 모주(茅洲) 김시보(金時保, 1658~1734)는 그가 52세 나던 숙종 35년(1709) 기축(己丑)에 광나루 배 안에서 귀락정(歸樂亭)과 이별하며 이런 시를 남긴다,

돛단배 바람 따라 굽비굽비 돌아가니
가는 손 오는 이 함께 이별 아긴다
술잔 들고 뒤채어 놀랄 적에 광나루 다가오고
어린 종은 벌써 물가 갈대밭에 서 있구나
(帆隨風轉去 逶迤行客歸人共惜離
把酒翻驚廣津近 小奴已復立蘆碕)

《茅洲集》卷三, 廣陵舟中 別趙君錫景命

모주가 귀락정과 이별을 이토록 아쉬워한 것은 귀락정이 모주의 백씨(伯氏) 난곡(蘭谷) 김시걸(金時傑, 1653~1701)의 큰사위로 모주에게는 조카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농암(農巖), 삼연(三淵) 문하의 동문사우(同門土友)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림을 그려 그 우의를 드러냈던 것이다.⁹³⁾

93) 최완수, 《검재의 한양진경》, 동아일보사, 2004, pp. 212~215.

• 동작진(銅雀津)

지금 지하철 굴길이 뚫려 있는 동작봉 제일 높은 봉우리 밑으로는 과거에도 과천 가는 큰 길이 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강변 쪽을 작은 산언덕 하나가 봉긋 솟아나서 운치를 더해 준다. 그 위에 해묵은 노송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음에서랴!

지나온 경치를 못 잊는 듯 시선을 뒤에 준 과객 하나가 아이가 끄는 당나귀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쪽 강변 백사장에는 말 타고 앞뒤로 거느린 선비행차가 사공을 소리쳐 부르고 있다.

당시는 승방천(僧房川)이라 부르던 반포천(盤浦川)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이수교(梨水橋) 일대는 저지대라 그런지 버드나무 숲이 가득 우거지고 흑석 동쪽 강변마을 역시 버들 숲으로 가득 가려져 있다. 버드나무가 많기로는 동작리 마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노들 강변 봄 버들’이란 노랫말이 생겼나 보다. 이때 동작리는 거의 서울 세가 들 별장으로 가득 차 있었던 듯 번듯번듯한 기와집이 즐비하다.

동작봉 산 중턱에도 큰 기와집을 지은 것을 보면 이 일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개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은 이때의 개발은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그와 조화시키는 일을 했으므로 오히려 집이 들어서면 더 그림 같아질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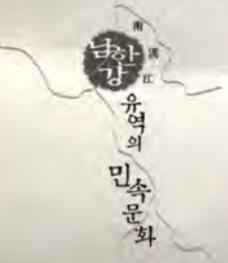
그래서 겸재 만년기(晩年期)의 역제자(易弟子)로 순조대왕의 외백조(外伯祖)가 되는 근재(近齋) 박윤원(朴胤源, 1734~1799)도 이런 시를 남겨 놓았다.

성곽 나서자 티끌 같은 세상일 없고 강물빛 비 맞아 다시 새롭다
배에 앉으니 산은 저절로 오가고 물에 나앉자 백로와 서로 친한다
물위에 정자 많으나 누각엔 주인이 적다
누가 능히 내게 빌려줘 살게 하려나 꽃과 대나무에 경륜(經輪)을 붙여 보겠네
(出郭無塵事 江光雨更新 坐船山自動 臨水鷺相親
湖上多亭子 樓中少主人 誰能借我佳 花竹寄經輪)

《近齋集》卷一, 過銅津

겸재가 6세 나던 해인 숙종 7년(1681)에 예조판서 신정(申晷, 1628~1687)이 왕명을 받들어 지은 <창빈안씨신도비명병서 昌嬪安氏神道碑銘并序>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창빈 안씨는 본관이 안산(安山)이며 적순부위(迪順副提) 안탄대(安坦大)의 따님으로 중종 2년(1507) 7세로 입궁(入宮)하는데 중종 모후인 정현대비(貞顯大妃) 파평 윤씨의 사랑을 받아 서사(書史)를 익히고 중종(1518) 20세 때는 후궁으로 뽑힌다. 이어 중종



24년에 숙원(淑媛)이 되고 35년(1540)에는 숙용(淑容)으로 지위가 오르며 그 사이 2왕자 1옹주를 두게 된다.

중종이 승하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명종 4년(1549) 사가(私家)에 나갔다가 홀연히 앓지 않고 돌아가니 나이는 51세였다. 처음에는 양주읍 서쪽 장흥리(長興里)에 장사 지냈는데 택조(宅兆)가 불길(不吉)하다 하여 뒤에 과천 동작리(銅雀里)로 이장했다.”⁹⁴⁾

필자는 이미 7장에서 악장(樂章)이나 비사(秘詞)에 나타난 민속문학적 정황을 언급한 바 있기에 이곳에서는 동작과 광진나루 한시를 통해 당시 생활상황이나 민속적 분위기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한성 초기의 ‘한성팔영(漢城八詠)’은 서울의 산세, 도성과 궁궐 및 관청 건물의 위엄, 바둑판 같은 동리 배포, 동대문훈련장, 서강의 뱃길 운수, 한강나루터의 행인, 북교 교외의 목장이었고, 성종 때의 ‘한성십영(漢城十詠)’으로는 장의사의 불당, 제청정의 달구경, 반송정의 이별, 양화별의 눈구경, 남산의 꽃구경, 전교별의 새봄맞이, 마포의 뱃놀이, 흥덕사의 연꽃구경, 종로의 연등구경, 입석포의 낚시질 등을 손꼽고 있다.

한성팔영과 한송십영 안에는 서강의 뱃길 운수, 한강나루터의 행인, 마포의 뱃놀이, 입석포의 낚시질 등이 나오고 있어, 한수장강(漢水長江)에서 물길질을 해 오면서 물길의 삶을 즐겼던 서중(庶衆)들의 족적을 이해할 만하며 양반들의 도법자연(道法自然)했던 지고한 삶의 투영도 상상할 만하다.

94) 최완수, 전계서, 동아일보사, 2004, pp. 345~348.

여 백